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을 위한 디자인방법에 관한 연구*

- 시대적 기능을 다한 근대건축물이 뮤지엄으로 재생된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design methods for museum restoration of modern architecture

- Centering on cases of restoration modern architecture which fulfilled its epochal function to museum -

Author 김인섭 Kim, In-Seob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이성훈 Lee, Sung-Hoon / 이사,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roughout the world, interest in issues relevant to energy, resources, environment, etc, is ever soaring. Therefore, the restoration of modern architecture that fulfilled its epochal function is working as a cultural, historic medium. In addition, it also plays its role in the side of environmental approach and so on. Moreover, the museum, which was only used for the possession of art collections and exhibition purposes, is currently expanding its scale and range as the center of culture and education. Also in reality, with the use of various programs, it is globally pursuing urban vitalizations. This study looks at the meaning of modern architecture restoration as well as its relationship with urban area.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design method's direction by finding the relevance between modern architecture restoration and museum during the restoration. This study is based on transformation and preservation scale during the restoration of modern architecture. It analyzed plane and design direction.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architectural and regional effect caused by restoration. As a result,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museum and the usage, scale, structure as well as superficial aging condition of previous architecture, it shows difference in design methods in the process of restoration. The exterior of architecture was restored and preserved to its original form in order to show the symbolical form through historical value. This is essential to the modern museum. On the other hand, the interior of architecture put more value on utilization concept that its preservation and thus was restored accordingly. However, in all the cases, previous architecture were commonly used and even when alterations and additions were made due to aging and their change in usage, they were restored in a way that preserved and harmonized previous architecture. If the design method for restoration of modern architecture selects the restoration method by considering problems related to location, building value, structure, if it is studied from various angles and is restored after considering its usage as a museum, then we will be able to generate cultural and historical synergy effect. Furthermore, apart from architecture, it will have great impact on urban vitalizations.

Keywords 재생, 보존, 근대건축물, 근대산업시설물, 뮤지엄
Regeneration, Conservation, Modern Architecture, Modern Industrial Facilities, Museu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건축물의 재생은 환경, 생태적 측면의 접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원이나 자산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 보존과 재생에 의한 문화의 계승 및 사업에

관계하는 지역사회와 사업주체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¹⁾ 또한, 1999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0회 세계건축가연합(UIA)의 테마인 “21세기의 건축”이 지향하여야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공헌하는 건축적 접근’으로 건축물의 재생에 대한 관심은 21세기가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효과적인 건축분야의 대응책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노정은, 건축공간의 재생·활용을 위한 컨버전디자인의 전략과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p.1~4

과거 활발히 사용되었지만 현재에는 수요가 다 되어 방치되어 있는 근대 건축물들의 재생은 단순 디자인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역사와 재생되어질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문화적, 역사적 매개체 역할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건축비용 절감과 신축과는 다른 개념의 새로운 창조로서 지역사회 및 도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국의 테이트 모던, 오르세미술관, 중국의 798단지 등 폐허로 남은 과거의 건축물을 재생하여 많은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이루었으며, 이에 국내에서도 서울시립미술관과 최근 서울역청사, 당인리화력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점차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과거의 작품 소장·전시 용도로만 사용되던 뮤지엄²⁾은, 현재에 문화적 역할, 교육의 장으로 그 규모와 범위,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단순 뮤지엄의 생성, 발전이 아닌 도시문화의 핵심으로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United Arab Emirates)의 행정수도인 Abu Dhabi에 Saadiyat Island(아랍어로 '행복의 섬') 신흥도시 개발계획에 문화지역을 선정하고, 5개의 뮤지엄³⁾을 2012년에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관할 예정에 있는 등, 세계적으로 뮤지엄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컬처노믹스(Culturenomics)'⁴⁾는 문화(cultur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로 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여 경제적 풍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⁴⁾ 이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뮤지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능이 쇠퇴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근대건축물⁵⁾이 뮤지엄으로 재생·보존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기를 되찾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를 바탕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국내의 근대건축 재개발 계획에 있어 뮤지엄으로 재생을 통해 도시 활성화 및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범위는 장소적·역사적 기능을 다한 근대건축물의 재생을 통해 재탄생한 건축물들 중 뮤지엄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자료조사 및 그에 따른 문헌들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첫째, 근대건축물 재생에 의의 및 도시와의 관계와 근대건축물의 재생 유형을 문헌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근대건축물 재생과 뮤지엄과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의 유형을 정의하려 한다. 둘째, 장소적·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시대적 기능을 다한 근대건축물이 뮤지엄으로 재생된 사례를 선정하여 근대건축물의 보존·증축 등이 구조적, 평면·입면

의 변형 및 공간 변형 등 다양한 디자인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려 한다. 셋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기능을 다한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 방법과 그에 나타나는 효과들에 대해 파악한다.

사례조사 대상은 세계 뮤지엄 중 시대적 기능이 다되어 방치된 건축물이 뮤지엄으로 재생되어진 뮤지엄 사례들로 선정하였다. 공장·창고·학교·기차역 등 과거 다양한 용도·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근대건축물이 뮤지엄으로 재생된 사례로서 과거 시대를 이끌어 나간 산업시설 및 지역적·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근대 건축물로 판단되는 건축물들로 선정하였다. 사례조사 및 분석은 문헌조사 및 인터넷 매체의 병행으로 이루어졌다.

2.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

2.1. 근대건축물 재생의 가치 및 의의

보통 재(再, re-)는 「다시」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생(生)은 「사용」, 「삶」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 각 단어는 「다시 사용됨」, 「되살아남」 등으로 사용된다.⁶⁾ 도시는 시간과 공간의 틀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적 현상이다.⁷⁾ 즉, 사회적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축물이다. 역사성·시대성이 있는 건축물을 재생한다는 의미는 건축물이 갖고 있는 각각의 조건과 상황 및 재생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건축에서의 재생은 기존의 상황을 현 시대에 맞게 다시 되살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결코 사회·역사적으로 낭만적 기호의 치장과 단순히 보전이라는 명분을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 자연스레 바뀐 생활환경의 변화를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가치를 부가시키거나 치환하는 명백한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건축의 재생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근대건축의 재생은 그 자체의 편의성 보다는 보존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원형 보존을 통한 재생이 아닌 이상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현재 근대건

2) 본 연구에서 뮤지엄이라는 용어는 유물의 전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박물관(Museum)과 예술작품의 전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미술관(Art Museum)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3) SOM(Skidmore, Owings & Merrill)의 master plan으로 세계 유명건축가들이 모여 Sheikh Zayed National 뮤지엄·Guggenheim 뮤지엄 분관·Louvre 뮤지엄 분관·Maritime 뮤지엄·Performing Arts Center를 2012년에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4) 도시재생네트워크 지음, 뉴욕·런던·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픽셀하우스, 2010, p.7

5) 위 논문에서 근대건축물은, 근대건축물, 산업시설물 및 역사적·장소적 보존이 필요한 공간으로 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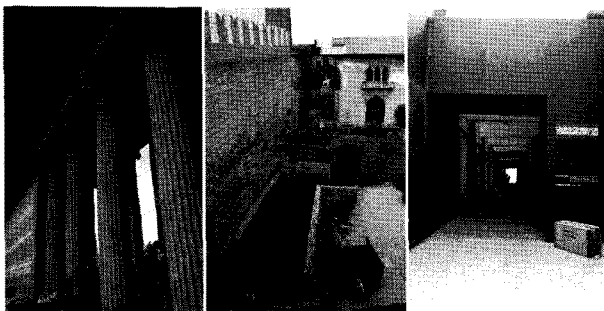
6) 에센스 국어사전, 도서출판 민중서림, 2002년 개정

7) 도시재생네트워크 지음, 뉴욕·런던·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픽셀하우스, 2010, p.24

축물의 재생에 있어 보존의 의미 이전에 선행되어 지는 것은 건축물의 활용이다. 건축물은 시대의 문화·기술·사회 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건물을 재생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과 변형이 필요하다.⁸⁾ 따라서 근대건축물의 재생은 건축물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현시대의 효율적 건축물 활용 모두를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2.2. 근대건축물 뮤지엄 재생의 배경 및 의미

역사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의 뮤지엄 재생은 1828년에 Karl Friedrich Schinkel에 의해 설계된 프로이센 왕가의 전리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세워진 알테스박물관(Altes Museum, ①)으로 시작되었다. 패전국 독일의 자존심회복을 위해 계획된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전쟁 후 파괴된 뮤지엄을 복구하여 역사적 건축물의 뮤지엄으로서 사용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온 뮤지엄 건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 이후 12세기에 지어진 이탈리아 베로나의 가스텔베기오성을 1960년대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에 의해 미술관(Castelvecchio Museum, ②)으로 재생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방치된 군수품 공장을 프랑스 건축가빌모트(Jean Michel Wilmotte)에 의해 재생된 북경 798 예술지구의 UCCA(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③)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재생되어지고 있다.



<그림 1>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 사례(왼쪽으로부터 ①,②,③)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은 근대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에게 지역 아이덴티티를 제공하고, 문화적 공간으로 재생을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 증대와 기능을 다한 근대건축의 이미지 회복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지역적, 국가적 문화향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단지 뮤지엄 속의 전시물들이 아닌 뮤지엄 건축물 자체에서도 사회적, 역사적 효과를 이룰 수 있다.

2.3.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 방법의 유형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은 재생 용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 건축물이 사용된 용도, 규모, 구조적 문제에 따라 다양하게 재생될 수 있다.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 유형은 <표 1>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표 1> 근대건축물 뮤지엄 재생 방법의 유형

유형	방법	내용
A	원형 보존 개념의 재생	기존 건축물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건축물 구성원이 뮤지엄에 적합하여, 유지보수 및 재생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제외한 증축·철거 없이 건축물 기존의 양식, 규모를 유지하여 다시 사용하는 경우
B	전체적 외관 변형을 통한 재생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없고 외부의 구조 기능이 뮤지엄으로 적합하지 않아 건축물 외부의 전체를 증축 및 변형하는 경우
C	부분적 외관 변형을 통한 재생	외부가 뮤지엄으로 활용이 저하될 경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파사드 등) 보존하되 기능에 따라 외부의 부분을 증축 및 변형하는 경우
D	전체적 내부 변형을 통한 재생	뮤지엄으로 활용하기에 내부 구성이 문제가 될 경우 시대적·기능적으로 필요에 의한 건축물 내부의 대부분을 증축 및 변형하는 경우
E	부분적 내부 변형을 통한 재생	뮤지엄으로 활용하기에 내부 구성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시대적·기능적으로 필요에 의한 건축물 내부의 부분을 증축 및 변형하는 경우
F	수직·수평적 증축 또는 신축건물과의 연결을 통한 재생	뮤지엄으로 재생하여 활용하기에 규모 및 기능적인 이유로 기존 건축물에 수직·수평적 증축 및 한 대지에 신축건물과의 연결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재생

근대건축물의 재생은 보존의 의미로서도 중요하지만, 재생 후 활용 시,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문제 등도 중요하다. 즉 뮤지엄으로 재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전시실의 수와 규모, 창고 등과 카페, 레스토랑, 서점 등의 부가시설 및 뮤지엄을 관리하는 사무실 등의 실 배치와 전시를 위한 조명 및 자연광 유입, 관람객과 직원의 동선 등과 함께 기존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존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재생해야 한다.

3.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 사례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의 방법론 및 유형 분석으로, 사례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대상

구분	뮤지엄 명	위치
3.1	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Berlin	Berlin, Germany
3.2	Mambo, The Bologna Museum of Modern Art	Bologna, Italy
3.3	Tate Modern Collection	London, Great Britain
3.4	MoMA P.S.1 contemporary art center	NewYork, the USA
3.5	Seoul Metropolitan Museum of Art	Seoul, Korea
3.6	UCCA,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Beijing, China

3.1. 함부르거 반호프 베를린 현대미술관

(1) 개요

동독과 서독 사이의 비무장 지대에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 옆에 수십 년간 방치되어있던 함부르거 반호프는, 통일 후 7년간의 긴 개축작업 이후 베를린의 과거 역사적 아픔을 딛고, 새로운 현대미술의 명소로

8) 이성호, 리노베이션을 통한 근대건축물의 공간 보존 실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29~30
9) 재생되어질 뮤지엄의 프로그램에 맞게 필요한 실(홀, 전시장, 학습의 공간, 창고, Cafe, Shop 등)들의 수와 그에 따른 면적 및 동선에 따른 구성을 뜻함

1996년 개관하였다. 과거 기차역에서 박물관까지 활용 이후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이후 베를린 탄생 750주기 축제 때, '베를린으로 여행'이라는 전시를 통해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전시 이후 베를린 의회는 역사적 가치와 함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 현대미술관으로 재생하여 사용할 것을 적극 합의 하게 되었다.

함부르거 반호프의 특징으로는 단순 전시뿐만 아니라, 음악, 문화, 토론, 강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공간을 열어두어 살아있는 현장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는 재생된 뮤지엄을 통하여 과거의 아픔을 기억·보존하고, 현 시대에 일어나는 끝없는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표 3> 함부르거 반호프 베를린 현대미술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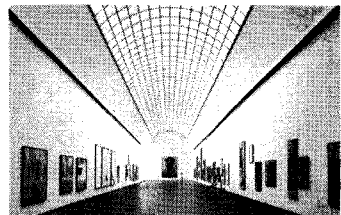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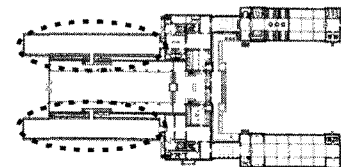
이름	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Berlin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47~1888년대 후반. 후기고전양식으로 건축, 기차역 • 1906. 교통철도박물관, 건축박물관으로 재개관 • 2차 세계대전시 파괴 • 1987. 베를린 시에서 일부 재건·복구하여 베를린에서의 여행이라는 전시 기획 • 1996. 건축가 J.P.Kleihues로 복구 및 개축작업, 재개관
위치	Berlin, Germany
규모	지상 3층 연면적 17,900㎡, 전시면적 9,000㎡
건축가	- / Josef Paul Kleihues
원기능/기능	기차역/교통철도·건축박물관/상설전시/현대미술관



뮤지엄 구성

1층 - 전시공간, 중앙 전시 홀, Cafe, Restaurant, Shop

(2) 평면분석



<그림 2> 평면도 및 증축된 갤러리

조각공원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3) 뮤지엄 재생 방법

함부르거 반호프 베를린 현대미술관은 250m 길이의 과거 선적창고를 리모델링하여, 구조적 문제로 일부분의

구조체를 제외한 기존의 벽돌·철제 프레임 등 대부분이 노출된 상태로 보존하여 전시에 활용된다. 20세기 초, 뮤지엄의 기능을 위해 두 날개부분을 건립하여 역사화된 파사드와 원형 화단과 함께 사용하여 과거의 기관차 전차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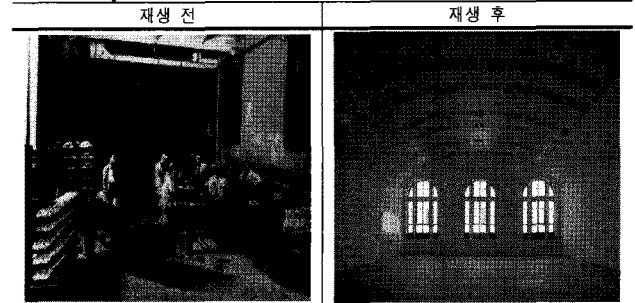
기하학을 참고로 한 통일된 건축양식과 동시에 시대적 맥락을 포착하는 J.P.Kleihues의 디자인 원칙들로, 전쟁 후, 파괴된 부분들을 원형에 맞게 복구하되, 갤러리로 사용되는 두 날개부분을 중앙 전시홀에 대칭으로 증축하여, 이질적 성향들은 소수의 새로운 중앙 계단과 램프로 명확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날개부분의 갤러리에서 엄격히 기하학적 규칙으로 이루어진 반원통형 천정을 통한 갤러리의 자연광 유입은 루브르 박물관의 Grande Galeries를 인용한 점을 쉽게 알 수 있다.¹⁰⁾

3.2. Mambo, The Bologna Museum of Modern Art

(1) 개요

<표 4> MoMbo 분석

이름	The Bologna Museum of Modern Art, MoMbo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5. 세계1차대전 밀가루 공급을 위해 제빵공장 건립 • 1928-1929. 소비자 자치단체본부로 활용, 현재 건물 규모로 확장 • 1935. 폐식 • 볼로냐 창조도시 전략으로 인한 재생계획 • 2007. 현대미술관으로 개관
위치	Bologna, Italy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건축가	- / -
원기능/기능	제빵공장/소비자 자치단체본부/현대미술관



뮤지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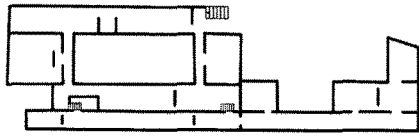
지하실 - 컨퍼런스 룸, 서비스 홀, 서점, 레스토랑 1, 2층 - 전시공간

이태리 볼로냐시의 공간쇠퇴지역의 "이태리 볼로냐의 창조도시 전략"으로 철도역 주변 주거지역, 전매청 공장, 도축장, 제빵공장 등의 주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공장들을 다양한 문화시설을 통하여 재생되었다. 이후 1990년 당시 최악의 재정적자를 지닌 이태리가 10년 후 재정재건을 이룬 배경 중의 하나로 볼로냐시의 재생을 통한 창조도시이다. 그 중 1915년 세계 1차 세계대전시 밀가루 공급란 문제해결을 위해 세워진 제빵 공장은 볼로냐 예술문화지역센터의 현대미술관으로 재생되었다. 전형적

10) Paul von Narede-Rainer, A Design Manual-Museum Buildings, BIRKHAUSER, 2004, p.231

인 고전양식의 건축 외관은 보존하고 뮤지엄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현대적 실내디자인과 구조·설비를 통하여 지역속에서 삶과 문화를 지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역사를 지탱하고 있다.

(2) 평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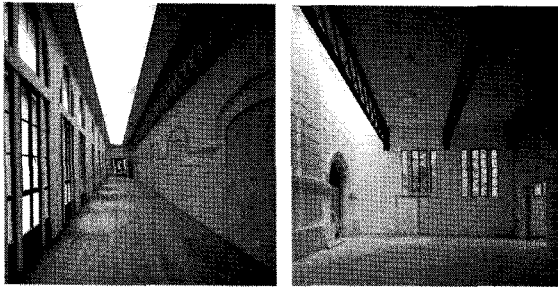
<그림 3> MaMbo 평면도

106m나 되는 장엄한 건축의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구조와 실내공간 조직을 완전히

복원시키고 새롭게 설비하였다. 들어가는 입구는 한쪽이 열린 포티코의 구조를 지니고 있고, 현관으로 들어가면 실내에서부터 미술관의 연대와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는 전이공간을 볼 수 있다. 내부 전시 공간에서 회랑식 전시관의 옆으로는 여러 개의 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각 공간에는 다양한 전시물이 채광조건이 좋은 쾌적한 상태에서 그 고유한 디자인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3) 뮤지엄 재생 방법¹¹⁾

과거 장엄한 외관을 보존하고 실내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 하였다. 동시에 새롭게 삽입시킨 부분들로서 여러 층을 연결하는 건축부분들이 있다. 각종 계단실과 인근 도축장이 예술대학건물로 재생된 건물 입구까지 연결하는 다리가 그것이다. 또한 미술관 모든 곳을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림 4> 미술관 내부의 기존벽면 보존 및 재생 이후 모습

재생을 위한 구조 및 설비에 있어서 배관과 안전설비를 추가하였으며, 뮤지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도조절 및 기타 설비부분을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 및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간에 있어서, 거대한 공간을 구조적으로 지탱하는 기둥과 높은 천정의 구조물들을 유지하면서 개조하였다. 기존 벽체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제반 구조 및 설치물들을 활용하고, 채광천정 부분을 더하여 자연광유입이 가능해 졌다. 갤러리 부분에서도 기존의 벽체들을 조형적 요소로 살리되,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만 남겼으며, 새로 계획된 실내공간의 배경색을 단순하게 하여 전시가 용이 하게 하였다.

3.3. 테이트모던미술관

(1) 개요

런던 템스 강 남쪽 벡크사이드 지역의 화력발전소는 1981년 국제 석유 위기 때 문을 닫았다. 산업혁명의 문화를 상징하던 녹슨 기계로 가득 찬 이 건물이 창의적 문화공간의 발상으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영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예술가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재생됨에 따라 2000년 개관 이후 연간 4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기존 버려진 건축물의 활용으로 얻은 경제효과가 2억 달러 이상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문지로 꼽히는 등 영국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뮤지엄 계획 시, 다른 근·현대 미술관에서 필수적이라 여긴 상징적·기념비적 건축 형태 창출에 중점을 두지 않고, 기존 형태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들을 차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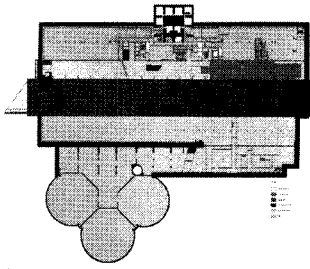
<표 5> 테이트모던미술관 분석

이름	Tate Modern Collection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 Bankside Power Plant 준공 • 1981. 발전소 폐쇄 • 1994. 테이트 모던 국제현상설계 공모 • 1995~2000. 리모델링 공사, 개관 • 2007. 증설안 확정, 2012 증설공사 준공 예정 	
위치	Bankside, London, Great Britain	
규모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34,547㎡, 전시공간 11,700㎡	
건축가	Sir Giles Gilbert Scott / Herzog & de Meuron	
원기능/기능	발전소/갤러리	재생 후
뮤지엄 구성		
지하1층 - 터빈홀(다목적 전시공간), 자료실, 교육센터, 상점		
1층 - 강당, 식당, 안내데스크, 서점 2층 - 상설전시공간 3층 - 기획전시공간		
4층 - 상설전시공간 5층 서비스 공간, 회원실 7층 - restaurant		

(2) 평면분석

미술관 실내로의 접근은 테임즈강에 면한 북측면과 터빈홀의 축을 따르는 서측면 두 방향에서 가능하다. 두 출입구의 레벨은 각기 다르나 서측 경사로를 따라 진입하면 길이 155m, 폭 23m, 천청높이 35m의 터빈홀의 축을 따라 지하층에 다다른다. 발전소 기능을 가졌던 거대한 터빈홀 공간은 다양한 경향의 현대미술 형식을 수용

11) 이연숙 외 2명, 창조도시 불로냐의 쇠퇴공장지역 재생 현지사례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8 No.3, 2008.06, pp.5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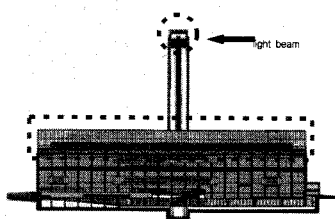
<그림 5> 1층 평면도

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3) 뮤지엄 재생 방법

위엄있는 외관은 기존 그대로를 사용하여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기존 발전소에서 미술관으로 재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34000㎡ 규모의 부지를 자유롭게 통과해 갈 수 있게 되었다.

공장 기기들로 가득찬 실내부분은 철거 후 뮤지엄으로서 활용되기 위해 상당부분을 변경하였으나, 마감과 세부 디자인은 기존 발전소에서 사용되었던 철재와 목재 위주의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 이미지 변화를 최소화 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환경과 새로운 기능을 동시에 포용하는 조화감을 느끼게 하였다. 뮤지엄으로 재생을 위한 구조 및 설비에 있어서 내부 철거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는 새로운 철골구조로 교체하여 전시공간 및 증축된 옥탑층의 무게를 지지하여 구조적 문제 해결하였다. 실내 전시공간의 천장은 시각적 저해 요소(조명, 공조, 냉난방 등)를 모두 숨기는 디자인으로 공간의 단순함 유도하였으며, 뮤지엄으로서 기능을 위해 다양한 전시실 구획하였다.



<그림 6>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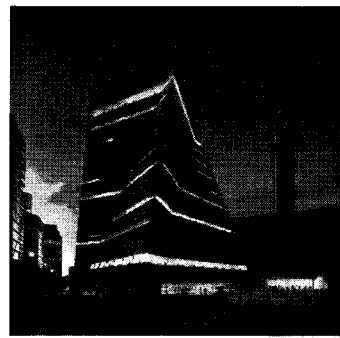
외관에서는 천정·굴뚝부에 light beam을 설치하여 낮에는 자연광 유도하고, 밤에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게 계획하였으며, 굴뚝은 2차 공사단계에서 런던 시내를 조망할수 있는 전망대(93m, 2개의 계단과 2개의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로 개조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쾌적한 관람과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해 테이트모던 미술관의 재생을 기획한 Herzog & de Meuron의 설계로 두 개의 건물간에 명백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뉴 테이트모던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증축 예정이다.

3.4. MoMA P.S.1

(1) 개요

MoMA P.S.1 현대미술센터는 1971년 Alanna Heiss가 ‘예술과 도시기반연구소’로 설립한 후, 1976년 이곳에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예술타운으로서의 가능성을 열기 시작하

할 수 있는 대공간 및 이벤트전시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조건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공간으로는 3개 층의 전시공간이 접하고 있어 터빈홀에 전시되는 특별작품은 상층부의 전시공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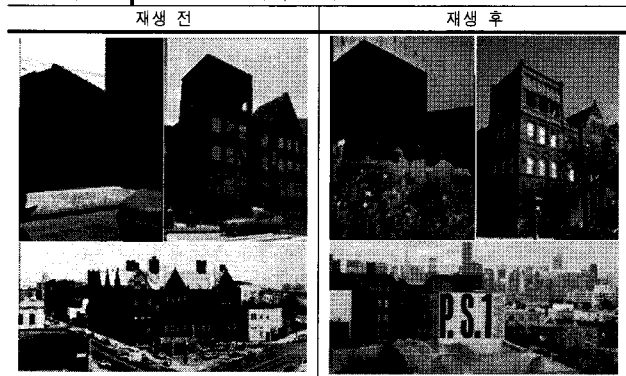
<그림 7> 증축예정인 뉴 테이트모던

정발게 되었다. 이러한 훌륭한 발상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복도와 비상계단 벽에 그려진 그림 및 설치작품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시품들은 신인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기존의 작은 교실들로서 사용된 공간에 컬렉션 전시가 불가능한 공간적 상황을 역으로 작가의 실험적 작품들로 구성되어 전시되는 곳이다.

<표 6> MoMA P.S.1 분석

이름	MoMA P.S.1 contemporary art center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960 뉴욕 최초 공립학교로 사용 • 1971 P.S.1으로 설립 • 1997 Federick Fisher and Partners 리노베이션 • 2000.01 MoMA의 분관으로 병합, 재개장 운영 • 2003.10.12 재개관
위치	Long Island City, New York, the USA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1,000㎡(옥외 전시공간 포함)
건축가	- / Federick Fisher and Partners
원기능/기능	뉴욕 최초 공립학교/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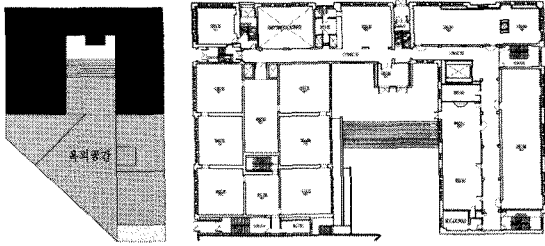


뮤지엄 구성

지하층	강의실, 갤러리	1층	안내데스크, Cafe, 서점, 갤러리
2층	갤러리	3층	갤러리, 사무실
4층	갤러리	5층	갤러리, 옥상 옥외공간 - 옥외 갤러리

(2) 평면분석

진입부는 운동장으로 사용되던 옥외공간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벽으로 새롭게 증축, 외부 전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인 ‘ㄷ’자 모양의 기존 벽돌집 교사를 뮤지엄 기능으로 개조하여 작은 각각의 실들과 복도·계단 및 화장실까지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신인작가들을 위한 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8> P.S.1 건물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3) 뮤지엄 재생 방법

P.S.1은 1800년대 후반 공립학교의 붉은 벽돌집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입부와 옥외전시공간을 현대적인 콘크리트 노출벽으로 처리하여 옛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을 공존시켰으며, 'ㄷ'자 모양의 기존 벽돌집 교사를 뮤지엄 기능으로 개조하고, 진입부와 운동장으로 사용되던 옥외공간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벽으로 새롭게 증축된 단순한 구성으로서 옛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기존의 작은 규모의 교실들에 작가가 공간에 맞는 작품들을 설치, 계획하여 전시가 이루어지며, 특히 복도 및 화장실, 비상계단 등의 공간에도 자유롭게 전시되어 다른 뮤지엄과 달리 실험적 갤러리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림 9> 옥외전시 '짧은 건축가 프로그램'

또한 새롭게 증축된 옥외공간의 외부전시는 매년 '짧은 건축가 프로그램'에 의한 설치 작품들이 특징적으로 전시되어,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5. 서울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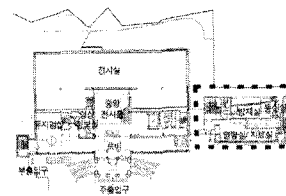
(1) 개요¹²⁾

1928년 11월 일제치하에 준공한 경성재판소는 우국지사들을 대량 체포, 구금하기 위한 장소였다. 덕수궁 돌담길 그 축의 한 결절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경성재판소 대지는 전면도로면 보다 약 6m정도 높아 고단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도입되어 그 당시 군림과 권위의 대표적 상징건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8.15 해방 후 대법원으로 사용되다가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1996년 10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활용하도록 결정되어, 설계경쟁공모를 통해 외관은 모두 보존하고 내부만 미술관으로 개보수 하여 사용하려 하였다. 하지만 내부구조의 극심한 노후화 및 미술관으로서 기능상의 문제로 전면 facade만 남기고 그 외 부분은 재건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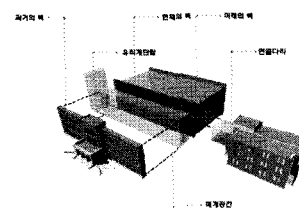
<표 7> 서울시립미술관 개요

이름	Seoul Metropolitan Museum of Art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7 일제치하시기에 경성재판소로 건축, 1928.11 준공 8.15 해방이후 대법원으로 사용, 1995 서초동으로 이전 1996.10 서울시립미술관으로 활용 결정 전면 파사드만 남기고 재건축 2002.5 이전, 개관 				
위치	Seoul, Korea				
규모	지상 3층, 지하 2층 면적 13,434㎡ 전시면적 3,280㎡				
건축가	岩井, 慶筭 / Seung Park(삼우설계)				
원기능/기능	경성재판소, 대법원 / 미술관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생 전</th> <th>재생 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r> </tbody> </table>	재생 전	재생 후		
재생 전	재생 후				
	<p>뮤지엄 구성</p> <p>지하1층 - 강의실, 체험공간, 임시수장고, 공조실, 주차장, 기타 사무공간 1층 - 로비, 뮤지엄샵, 전시실, 자료실 2층 - 전시실, 회의실, cafe 3층 - 전시실, 조각전시홀, 특별전시실, 레스토랑, 회의실, 관장실</p>				

(2) 평면분석



<그림 10> 1층 평면도



<그림 11> 매스 개념도

개화기 당시 외국인들의 정치외교활동 중심지역으로 근대건축물의 집결지에 위치하여 있어, 비록 일제의 잔재이지만, 어두운 역사적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얼마만큼 건축물의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본관건물은 미술관으로 재생되고, 그 옆에 나란히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였고,

전면광장은 조각정원으로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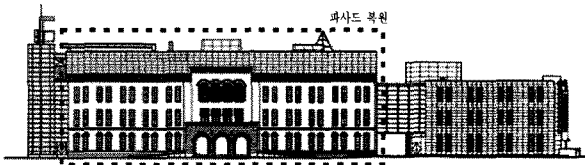
70여년의 시간차를 두고 과거의 벽과 새로 신축된 현재의 벽 사이의 매개공간을 통해 빛이라는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연결하였다. 그리고 메인 갤러리를 중심으로 좌측에 투명한 유리계단 타워가 시민 편의시설을 연결시켜준다.

(3) 뮤지엄 재생 방법

건물의 역사성·장소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술관으로 재생시 외관 복원과 내부의 개·보수를 계획하였지만, 극심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 이후 근세고딕의 수법을 사용한 전면 파사드만 복원·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술관

12) 서상우, 새로운 뮤지엄건축, CA현대건축사, 2002, p.118

으로 재생에 알맞게 변형하여, 정동길과 면하는 정면부의 상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신축된 우측 관리동이 전시동의 복원벽면과 동시대적 건축어휘로 자리하고 있다.



<그림 12> 입면도

전시실은 전시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전시 기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모, 형태, 층고, 마감, 개구부, 창 등에 변화를 줌으로서 전시실의 전시환경 및 전시에 다양성을 주어 전시기획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전시실로 계획하였다. 또한 관람자들의 관람 피로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계획하였다.

3.6. UCCA,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1) 개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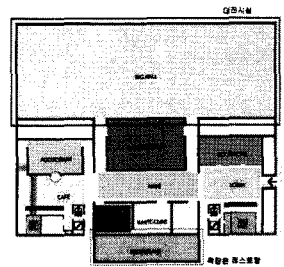
<표 8> UCCA 분석

이름	UCCA,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까지 사회주의 공장 • 1990년대 이후 문을 닫음 • 폐허로 방치 • 넓고 높은 건물들에 적은 임대료로 많은 예술가들이 798 지역 공장지대를 작업실, 갤러리로 사용 • 2002년 페이다웨이(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에 의해 비영리 사설 미술관으로 UCCA 개관 • Jean-Michel Wilmotte의 설계에 의해 2007년 외국의 사립 비영리 재단으로 개관 	
위치	Beijing, China	
규모	연면적 / 홀 면적 2,500㎡ 지상 2층	
건축가	- / Jean-Michel Wilmotte	
원기능/기능	사회주의 공장/현대미술관	
	재생 전	재생 후
	유지업 구성	
	1층 - 안내데스크, Cafe, 전시홀 3, 레스토랑, UCCA Store, 오디오룸	
	2층 - 다기능 공간, 사무공간	

북경 다산쯔의 798 예술지구 건물들은 독일 바우하우스 스타일로 세운 건물들로, 사회주의 공업혁명을 이끌어 가던 무기 공장들이었으나, 1990년대 냉전이후 무기 생산이 활력을 잃으면서 공장들은 정부에 의해 외부로 옮겨지게 된다. 이후 개방된 798단지에는 시장경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공장이 문을 닫게 되자 폐허가 되었다. 한때 전자타운이 조성될 계획이었다가 건물로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은 반면 임대료가 저렴하여 예술가들이 들

어와 작업하여 자연스럽게 예술가가 형성되었다. 그 후 갤러리들이 입주하면서 넓고 장식 없는 공장공간이 실용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파격적 장르의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적합할 뿐 아니라, 798 지역 공장지대의 구 사회주의 분위기와 현대미술의 대조적인 어울림이 지역의 독특함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여 많은 공장들이 미술관과 갤러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현재 100여개가 넘는 대형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공장의 옛 모습과 현대건물들이 공존하여 현대미술을 전시하고 있으며, 그중 UCCA는 프랑스 건축가 빌모트(Jean-Michel Wilmotte)의 설계에 의하여 2007년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립 비영리 미술재단으로 개장하게 되었다. UCCA를 비롯하여 798 예술단지에는 과거 버려진 공장단지에서 많은 예술가와 관광객들이 찾는 문화예술단지로 탈바꿈하여 경제적, 문화적 효율을 극대화 하였고, 도시적 재생을 이끌었다.

(2) 평면분석



<그림 13> UCCA 평면도

798지역 대부분의 전시장이 파티션 없이 큰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UCCA는 원래의 바우하우스형 지붕 구조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을 고려하여 공간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한편의 대

전시실에서 국제적인 중국 작가의 현대작품을 전시하고, 여러 영역으로 분할된 다른 한편의 소전시실에서 신진 작가들의 발굴을 위한 특별전을 전시한다. 거리에 면한 일층 외부에는 내부 레스토랑을 확장하여 주변 배경과는 달리 밝은 분위기로 대조를 이룬다.

(3) 유지업 재생 방법

UCCA건물의 외관은 798예술단지 내 대부분의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낡은 벽체와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지붕 모습을 유지하여 과거 사회주의 공장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50미터 높이의 수직적 굴뚝의 존재는 다른 건물과 차별화되며, 과거 이 지역이 공장지대였음을 상기시키는 이유로 UCCA의 굴뚝은 798 예술지역과 UCCA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최근 신축의 갤러리들도 들어서고 있지만, 798 지역 대부분의 갤러리가 내 외부의 낡은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는 있다. 이에 반해 UCCA는 외관의 형태 보존을 통해 낡음의 물질성을 강조하면서도 내부는 갤러리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조만 남긴 채 현대적으로 보수하였다. 하지만 남아있는 입구의 낡은 벽돌 벽과 천장의

13) 김명옥, 폐건물의 재생에 의한 현대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3, 2009.06, pp.32~36



<그림 14> UCCA 전경

콘크리트 보는 보존되어 현대적 공간 구성 안에서 두드러져 보여 마치 오브제 같이 느껴지며, 실내에 일부만 노출된 옛 굴뚝은 조형물 같이 활용되고 있어 과거의 공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4.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 방법

사례조사를 통한 시대적 기능을 다한 근대건축물의 재생에 있어 디자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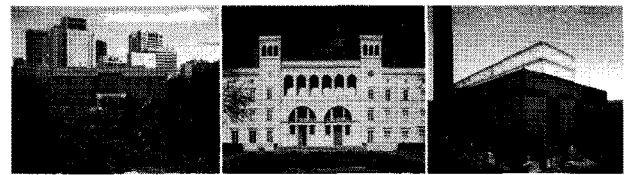
<표 9>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 디자인 방법

뮤지엄	유형	방법 및 분석내용
3.1	E	뮤지엄으로 활용시, 구조적 문제로 일부분의 구조체를 변경하였지만, 구조체를 제외한 기존의 벽돌·철제 프레임 등 노출된 상태로 보존, 전시에 활용
	F	부족한 전시공간의 확보를 위해 중앙 전시 홀을 중심으로 두 개의 대칭적 갤러리를 증축하여 보충, 북쪽으로 확장하여 조각공원을 계획(서측 갤러리, 조각공원 실행되지 않은 상태)
3.2	D	뮤지엄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내부구성과 실내의 구조 및 설비 등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지만, 기존의 벽체 및 울딩 등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존하여 내부 요소로서 활용
3.3	C	기존 외관을 유지하되 천장 굴뚝부에 light beam을 설치, 낮에는 자연광 유도하고, 밤에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 굴뚝은 런던 시내를 조망할수 있는 전망대로 개조될 예정
	D	뮤지엄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 기계 철거 후 상당부분을 변경하였으나, 리모델링 시, 기존 발전소에서 사용되었던 철재와 목재 위주의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 이미지 변화를 최소화 하는 개념
3.4	F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해 뉴 테이트모던이 기존 건물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증축 예정
	F	내부 전시공간 이외에도 옥외전시공간을 현대적인 콘크리트 노출벽으로 처리하여 옛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을 공존, 옥외공간은 매년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 의한 설치 작품들이 특징적으로 전시됨
3.5	C	극심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등으로, 근세고딕의 수법을 사용한 전면 파사드만 복원·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술관으로 재생에 맞게 재건축
	F	부가시설 등의 부족으로 확장된 우측의 부속건물을 전시동의 복원벽면과 동시대적 건축어휘로 신축하여 사용, 전면광장은 조각정원으로 조성하였다.
3.6	D	뮤지엄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관과 달리 내부의 대부분을 현대적으로 보수하였지만, 입구의 낮은 벽돌 벽과 천장의 콘크리트, 일부 노출된 굴뚝의 하부 구조물을 조형적 요소로 활용하였으며,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붕 구조를 따라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
	F	다른 뮤지엄과 달리 부족한 공간으로 인한 확장이 아닌 주변 배경과 대조되는 효과를 얻고자 내부 레스토랑을 부분적으로 확장함

재생될 뮤지엄의 방향과 기존 건축물이 사용되었던 용도 및 규모와 현재 건축물의 구조적·표면적 노후상태 등에 따라 재생시 디자인 방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대적 기능을 다한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은 기존의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되, 기능 변경에 의한 설비와 노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변형 및 복원은 필수적 요소였다. 전시를 위한 조명계획 및 자연광 유입을 위한 변경과 기존 건축물 내부의 철거시 발생하는 구

조적 문제로 인하여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 시 구조·설비의 변형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례에서 MaMbo와 테이트 모던의 경우, 뮤지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첨단 설비 시설들을 이용하였으며, 공간 구성에 있어 내부 철거로 인한 구조적 문제들을 보수 하는 형태로서 재생되었다.

현대 뮤지엄에서 필수적이라 여기는 상징적·기념비적 형태 창출을 용도 변경에 따른 외관의 부분적 변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과거의 건축물 본연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냈다. 건축물의 외관, 파사드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과거의 시대적 역사 그대로 보존·복원하여 물질성 및 조형성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시 활성화 및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방법을 통해 관람객들에게는 다른 기존의 뮤지엄과는 다른 특수성과 뮤지엄 자체가 지역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전시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5> 과거의 외관을 통한 물질성 및 조형성 강조

내부의 경우 이전의 사용 용도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부분적·전체적 변형이 있었지만, 외부 환경과의 연결을 통해 과거 건축물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려 하였다. MaMbo, UCCA와 같은 경우, 내부의 모습은 구조물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변형이 있었지만, 과거 벽면이나 굴뚝을 통하여 외부의 모습을 내부에도 연결시켜 뮤지엄 내부의 조형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또한 MoMA P.S.1은 뮤지엄으로서 활용되기 부적합한 실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변형을 최소화 하되 현대미술의 다양함을 장점으로 공간을 활용하여, 신인 작가 및 현대 작가들에 의해 독특한 전시들로 많은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뮤지엄 내부의 중앙 홀은 근대산업시설인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창고로 이용한 함부르거 반호프 베를린 현대미술관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의해 뮤지엄으로 재생시 중앙의 대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며 특히 현대미술의 불규칙적이고 입체적인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뮤지엄의 대공간으로서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뮤지엄의 전시공간 및 부가시설 등의 기능적 필요로 인하여 수직·수평적 증축 혹은 같은 대지에서의 신축을 한 경우,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위한 개념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의 마감재료·양식·분위기와 위치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신축 되는 방법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MoMA P.S.1, 증축중인 뉴테이

트모던과 같이 과거건축물과의 명확한 대비를 통해 나타난 효과들을 활용한 뮤지엄도 볼 수 있었다.

과거 역사와 사회가 담긴 건축물이 뮤지엄으로 재생되어 활용한다는 것은 역사적 건물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시킨 점 이외에도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다. 과거 장소적·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지녔던 건축물들이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못하거나 시대적 기능을 다하여 방치되어 있던 것을 새로운 기능, 혹은 과거의 시점을 존중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재생된 뮤지엄을 통하여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도시 정체성을 보존하며, 인근 지역은 물론 주변 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들을 모든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5. 결론

21세기에 들어 국가가 아닌 도시의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독특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는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브랜드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의 확충 및 디자인을 통한 발전을 국가 및 도시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시설 중 뮤지엄을 통하여 문화도시로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문화는 순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오랜 역사와 지역적 환경,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지,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화 및 철학 등과 함께 각 시대별로 각각의 특성에 의해 만들어져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것이다.

사례들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 중 특히 근대산업시설 및 규모가 큰 학교, 창고 등 건축물의 뮤지엄으로 재생은 뮤지엄으로 활용될 충분한 면적과 건축물이 갖는 조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건축물의 재생적 의미 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 크게는 국가적으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지만, 현대적인 새로운 것으로만 채우고, 과거 어두웠던 역사들을 파괴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서울의 정체성, 한국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뿌리 깊은 도시브랜드화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근대건축물의 재생을 가치적·의미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시점에서,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은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문화를 통한 도시브랜드화를 위해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을 통해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활기를 되찾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단순 기념비적 재생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의

디자인 방법은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중심으로 하되, 건축물이 위치한 장소적 개념이나 건축물의 가치, 규모, 구조에 따라 재생방법을 선정하고, 특히 뮤지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 각 실의 구성 및 다양한 점들을 고려하여 역사적 의미와 현 시대의 건축물에 활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진 후 재생되어야 한다.

이 후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기능을 다한 근대건축물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유형의 근대건축물의 뮤지엄 재생에 대하여 좀 더 폭넓고 심층적으로 다루어져 재생 뮤지엄의 다양한 디자인 방법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도시재생네트워크 지음, 뉴욕런던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픽셀 하우스, 2010
2. 만프레드 라이어 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100, 신성림 옮김, 서강출판사, 2007
3. 서상우, 박물관·미술관 건축총서2-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4
4. 서상우, 새로운 뮤지엄건축, CA현대건축사, 2002
5. Paul von Naerde-Rainer, A Design Manual - Museum Building, BIRKHAUSER, 2004
6. 노정은, 건축공간의 재생·활용을 위한 컨버전디자인의 전략과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08
7. 박재욱, 폐 공장을 활용한 복합 전시 공간 계획,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12
8. 서원, 근대 산업시설의 재생-당안리 발전소 리노베이션 계획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02
9. 엄용래, 근대건축의 보존과 재생활용의 디자인수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12
10. 이대규, 국군기무사령부 건물을 활용한 서울국립현대미술관 계획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02
11. 이성호, 리노베이션을 통한 근대건축물의 공간 보존 실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12
12. 이연숙·윤혜경·소갑수, 창조도시 볼로냐의 쇠퇴공장지역 재생 현지사례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8 No.3, 2008.06
13. 임동호, 국군기무사 부지를 활용한 국립현대미술관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새것속에서 재생하는 옛것,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08
14. 김명옥, 폐건물의 재생에 의한 현대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3, 2009.06
15. 김민영·문정민, 도시 재생 관점에서 문화의 거리 공간특성 분석-국내 문화의 거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6호 통권83호, 2010.12
16. 이다운·김문덕,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 창작공간의 프로그램 특성 및 디자인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2권 3호 통권23호, 2010.10

[논문집수 : 2011. 04. 28]

[1차 심사 : 2011. 05. 23]

[개재확정 : 2011. 06. 10]